





행사일정 2018.12 ~ 2019. 3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 제 4차 법화경 독송 천일기도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 남인도 국제 의료봉사: 11.11(일)~11.19(월)
- 정토마을 김장: 11.23~11.25
- 진신사리 봉안 100일기도 10차 회향: 2018.12.9(일)
- 동지기도: 2018.12.22(토)
- 정토마을 송년회: 12.14(금)
- 법화경 독송 및 호마기도: 12.22(토)~12.23(일)
- 종무님 시무식: 12.31(월)
- 2019 정토마을 장좌기도: (입재) 19.01.30~ (회향) 19.2.19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2019 석사, 생명교육전문가과정 신입생모집: 11.5~11.16
- 불교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사 2급 과정: 2019년 1~2월
- 유식명상특강: 2019년 1~2월
- 2019 졸업식, 입학식: 2019.3/2
- 2019 봄학기 개강: 2019.3/2
-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 2019년 3월~

마하보디교육원

- 해인사 학인스님 특별프로그램: 2018.12.2~12.22
- 불교 생명과학: 2018.12.6~2018.12.8
- 불교 논리학(딱셀): 2018.12.13~2018.12.16
- 48기 생사의 장 불교 호스피스교육: 2019.1.5~2019.1.10
-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2019.3.26~2019.3.28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 환우 연극심리상담: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 환우 생신 잔치: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후아유: 셋째 주 일요일
- 하하하공연단: 셋째 주 목요일
- 개구리공연단: 셋째 주 화요일

청주 정토마을

- 염불선 수행: 매월 셋째 주 금요일 PM 7시~일요일 PM 1시 회향

발행처_(재)정토사관재회 **발행일**_2018년 12월5일 발행 **편집인**_능행 등록_울산바01004 (2008.4.11) **편집위원**_장광대 김현아 김건형 **사진**_편집부 **정토마을(울산)**_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052-255-8588) **정토마을(청주)**_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초정로 856-19(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_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길216-39(052-255-8521) **제작**_(재)정토사관재회
비매품 본 인쇄물은 석보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018 겨울호 (통권 39호)

목 차

| | |
|-----------------------|----|
| 01 여는 글 | 04 |
| 02 호마 특법기도 | 05 |
| 03 성지순례 후기 | 06 |
| 04 자재요양병원칼럼 | 08 |
| 05 환자보호자 이야기 | 09 |
| 06 법화경 강설 | 11 |
| 07 교육후기 | 16 |
| 08 대학원 이야기 | 17 |
| 09 청주정토마을 | 19 |
| 10 공덕의 향 | 20 |
| 11 후원명단 및 감사의 글 | 21 |
| 12 내가 함께하고 싶은 기도 | 26 |
| 13 정토마을 소식 | 28 |
| 14 의약품 봉사 후기 | 30 |
| 15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 34 |
| 16 정토마을소식-마하보디교육원 | 35 |
| 17 정토마을소식-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36 |
| 18 정토마을과 동행의 길 | 38 |
| 19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 39 |
| 20 재단소식 | 40 |
| 21 마하보디교육원 | 43 |

기해년을 맞는 동지를 준비하며

정토마을 트랙에 나뭇잎들이 모두 모습을 감추고 푸르게 피어주었던 연잎도 이젠 시들어서 앙상한 가지에 새들이 노닐며 몇 개 달린 흥시감이 이 해가 저물어 감을 일깨워 줍니다. 정토마을 후원가족이신 당신의 삶은 부디 맑고 건강한 삶 이시기를 기원 드리며, 덕분에 인도 의료봉사 잘 다녀왔기에 인사드립니다.

정토마을후원 가족 여러분들의 따스하고 연민 깊은 기도와 사랑으로 11월 11일부터 진행 되었던 남인도 의료봉사9일간의 여정, 인도의 남쪽 끝 땅은 멀고도 먼 곳이며 37명이 50개의 거대한 약 가방을 들고 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기도해주시는 정토마을 가족들 기도 속에서 순조로운 여정으로 회향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하여 다시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1500포기 김장을 삼일 동안 마치고, 지금은 동짓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법화경28품 철야 독송과 호마기도를 1박 2일로 준비 중입니다. 정토마을과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의 고마움 마음에 보답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 기도 법회를 봉행 하오니 많은 분들 일정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때 무비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법화경 한 권씩을 나누어 드릴예정입니다. 2019년은 가정에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여 성공적인 삶과 가정의 건강한 안녕을 기원 하시기를 소망하는 의미입니다.

12월 22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는 영축산법화회상을 장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현대의료가 물모지인 산간 오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진료소를 짓고 의료진을 구축하여 현대의료혜택이 가능해지도록” 정토마을은 국경 없는 민들레 “국제의료사업부를 신설하여 2019년부터 속도를 더 내어 볼 까합니다. 국제의료봉사도 연 1회 이상 준비하려 합니다. 하여 저는 전국을 순회 하면서 정토마을 민들레 회원들을 모집 하고 있으며, 정토마을 민들레회원들이 많은 흙씨를 뿌려서 그에 따른 성과물을 가지고 불교가 국제사회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실천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정토마을은 사회적인 고통에 의료적인 측면으로 개입하면서도, 함께 동행 하여 주시는 회원들의 개별적인 성공과 가정의 안녕을 염두에 두고 1년에 몇 번씩 기도 대 법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갖가지 이유로 살 수 있는 가능성 보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목숨이 안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잠재하여 있기에 더욱 더 선업의 공덕을 짓고 몸과 마음의 기운이 맑고 건강하여 지도록 기도를 할 때 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늘 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고 믿음과 신뢰로서 같이 걸어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허공 같습니다. 이차인연 공덕으로 당신의 가정에 안녕이 유지되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복된 삶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2019년 한 해의 삶도 풍요롭고 복되며 선업의 공덕이 충만한 삶 이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동지 날 저녁에 당신을 정토마을 대 강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 052-255-8588로 전화하시어 안내 받으세요.

무술년 끝자락에서 동지 기도대법회를 준비하는 能行 스님합장



2018년 동지 호護 마摩기도에 대하여

호마기도는 밀교의 의식이다.

금강밀승을 수행하시어 아사리(성취)를 하신 분께서 집전 하시며, “불火”의 의식이라고도 한다. 만다라를 그리고 그 위에 불은 소나무로 불꽃을 피워 불꽃 속에 깨끗한 곡식들을 태워 그 연기로 시방제불과 모든 신중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행운과 안전한 삶을 기원하는 기도의식이다.

<대승관상만다라정제가취경> 하편에 호마작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호마기도를 집전하는 아사리(성취자)는 공물을 모두 갖추고 法에 의한 3상을 관상하고 결인하여 진언을 독송하며 화신을 부른다. 화신이 불 속에 모습을 나타내면 불 속에다가 공양물을 받치고 그 공양물은 화신이 일체 모든 불보살님께 전하여 올린다. 고 한다.

호마기도의 불꽃은 대일여래의지혜의 불꽃이다.

첫 번째 : 우리들이 무수한 과거전생에서부터 몸과 입과 행동으로 지은 악업들이 또 다른 악업과 충돌하면서 일으키는 병고액난(질병, 사고, 파산, 파괴) 삼재팔난과 구고구난의 나쁜 재앙들을 대일여래의 불꽃으로 태워 없애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 대일여래의 지혜의 불꽃으로 몸과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불행과 슬픔 그리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여 선하고 맑고 밝은 마음을 회복하고 행복을 증장시키며. 선하고 착한 소원을 성취시키며, 무병장수를 가능하게 하며 사업의 번영을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어 지니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기도이다.

세 번째 : 대일여래의 지혜의 불꽃으로 불보살님들께 가호를 청하여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배신 그리고 과거전생에 지은 악연과 서로 만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불꽃으로 제거하며 사업과 가정에 침범하는 실패와 불행의 기운을 제거하는 것에 큰 도움을 얻는 기도이다.

이 만큼 중요한 기도 법이기 때문에 밀교수행을 성취하지 못한 분은 이러한 기도를 집전할 수 없다고 한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하였음>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오후6시부터 법화경 독송으로부터 시작한 동지기도는 다음날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호마기도를 받음으로써 회향 하게 됩니다. <따뜻한 옷 준비>

몸과 생각 행동으로 알게도 모르게도 지은 죄업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번에 불보살님의 가피로 밀교 금강밀승을 수행하시고 성취하신 큰스님께서 호마기도를 직접 집전하여 주시는 고귀한 인연을 만났을 때, 고귀한 보리심을 내시어 승가 재가 차별 없이 그 기회를 꼭 자신에게 행운으로 챙길 수 있는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은 인천의 보배입니다. 몸이 병들고 몸이 상하고 삶이 파괴되면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명심하십시오. <능행>

돈황 실크로드 성지순례를 마치고...

순례자 김현아

진시황 병마용갱 <세계 8대 불가사의>



진시황 병마용갱(秦始皇 兵馬俑坑)은 지난 2천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가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하였다. 병마용은 현재까지 3개의갱이 발굴되었고, 그 규모가 광대하여 30년 가까이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진시황릉 주변 2km의 광대한 부지에 장대한 궁전이 지어져 있었다고 하며 지하에 건설된 지하궁전의 일부이다. 사마천의 '史記'에 의하면, 진시황이 죄인 70여만명을 동원하여 사후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명사산, 월아천



명사산(鳴沙山)은 돈황의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솟아 있는 모래산으로 남북 20 km, 동서 40km, 해발 1,715m이다. 밀가루처럼 곱이 고운 모래산과 수천 년간 마르지 않는 샘물이 같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막고굴과 월아천을 품고 있는 명사산(鳴沙山)은 바람에 모래가 흘러내릴 때마다 나는 소리 때문에 모래가 우는 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월아천(月牙泉)은 중국 고비사막에 위치한 명사산 아래 있는 초승달 모양의 오아시스로 미인의 눈썹처럼 곱게 흰 모양처럼 아름다우며 천년 넘게 한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신비의 호수이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 호수는 희귀하게도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사막 한가운데라고 하면 건조하고 메말라서 금방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이 호수는 수천 년 동안 작은 오아시스로서 존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돈황 막고굴 <세계문화유산>



중국 최고의 석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돈황의 막고굴은 돈황시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명사산(鳴沙山)의 동쪽 절벽에 남북으로 1.8km에 걸쳐 파놓은 석굴군이다. 석굴의 수가 1천 개 이상이라 일명 천불동이라 한다. 이 막고굴이 처음 조각되기 시작한 것은 동진(東晉) 이후 원나라 때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건조 개축되었다. 서기 366년 낙준 스님이 상서로운 빛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절벽에 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을 시초로 이후 14세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수많은 승려와 조각가, 석공, 시주들이 드나들며 1.7km에 달하는 절벽에 735개의 석굴을 만들었다고 한다. 긴 세월 동안 자연붕괴와 인간들의 파괴로 많이 훼손되어 지금은 492개의 동굴만이 남아 있고 그나마 보존을 위해 60개 정도만 개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막고굴 문화재 보호와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1961년에는 국무원에서 막고굴을 중점문화재로 지정하고 막고연구원을 설립하여 보호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고성



고창고성(高昌故城)은 투루판시 동쪽 40여km 떨어진 화염산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장에서 제일 큰 역사문화고성이다. 고창고성은 후한시대에 구축됐으며 천축국을 향하던 현장 스님은 630년 이곳에 도착해 1개월을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현장 법사는 천산북로를 택해 인도를 가려다가 불교신자인 고창국의 국민태 왕으로부터 간곡한 요청에 의해 이곳에서 설법을 하며 발목을 잡히기도 했으나, 고창국왕이 20년간의 유학자금과 물자를 지원하여 천산남로를 따라 인도에 갔다 올 수 있었다. 현장법사가 머물렀다는 절터도 남아있다.



천산천지



천산천지(天山天池)는 우루무치에서 약 120km 떨어진 서역의 천산산맥에 있는 호수이다. 해발 5,445m인 박격달봉(博格達峰)중턱, 해발 1910m에 있으며 수심 100m이다. 면적 3㎢에 달하는 거대한 반원형호수로 산봉우리가 감싸고 있어 경치가 빼어나다.

세계에서 유명한 고산빙적호수이며 1982년 국가중점풍경보호구로 되었다.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아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유람하거나카자흐(하자크)족의 천마를 타고 산을 돌아 볼 수도 있다

실크로드는 고대 동서 문명을 연결해주는 대륙횡단으로써 인류의 경탄할만한 창조물의 집합장소라 말할 수 있다. 이 무역통로는 동양과 서양의 독특한 문화전통, 종교신앙, 과학과 기술이 교류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명이 만나는 장소였다. 서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 곳에서 발길을 멈추는 곳으로 유명하다. 실크로드의 관문, 돈황은 크게 성한다는 의미로 고대의 동서교역, 문화교류 및 중국의 서역 진출의 거점이 되었던 교역도시이다. 특히 당대 7세기~8세기 중엽에 걸쳐 가장 왕래가 성해 동서무역의 중계지점으로 문화의 꽃을 피우며 세계적인 돈황예술을 창출했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막고굴의 천불동이 그 예이다. 순례여행동안 감탄사를 연발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교미술의 보고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점, 형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정토마을 성지순례에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부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9년도 정토마을 의료봉사 및 순례일정에 대하여

일정: 2019년 6월 11일

2019년 11월 11일(일정이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료봉사 선정대상국가와 지역

1. 북인도 라다크
2. 스리랑카
3. 네팔
4. 인도네시아

등이 선정지역으로 검토중입니다.

하여 3월말 경에 의료봉사국가와 지역이 선정되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사기간도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느니 3월말 경에 같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능행 합장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요양병원이 나아가야 할 길

간호부장 김 미경

요양병원 하면 많은 이들은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생의 끝자락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요양병원은 점점 지역사회 안에서 죽음을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 예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이다. 2016년 9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 본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료소비자의 요구도도 높아질 것이며,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요양병원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의료인은 말기환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느 보호자의 하소연이다. 말기 암으로 진단받은 후 대학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2주간 통증조절 및 치료 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을 소개 받아 입원치료 중 화가 나서 더 이상 입원하고 싶지 않아 전원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이유는 환자의 마지막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섬망 증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약물사용에 이어 행동조절의 어려움에 이르자 환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죽음에 임박해 있는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주었다면 보호자는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며, 대학병원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해 드리기 위해 많은 요양병원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겐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요양병원은 중점가치를 바꿔야 한다. 환자의 신체기능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간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 순간만이라도 온전히 곁에 머물러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차별성을 알게 될 것이다. 요양병원에 가니 “참 따뜻하고 편안하구나”라고 비가 내리는 오후에 로비에서 가족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가족을 봤다. 어르신이 참 행복해 보인다. 행복, 존엄, 인권 이런 단어는 어렵고 먼 단어가 아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단어가 멀고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실천이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실천은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만 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자 “아~ 그러셨구나”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자재요양병원 심대식 환우님의 가족

저는 아들 셋의 어머니이고 교직 생활을 하던 남편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아왔던 주부입니다. 남쪽지방 통영에서 울산이 고향인 남편을 따라 울산으로 온 지 20년이 넘었네요. 늘 과묵하고 말이 없는 남편은 재미는 없었지만 아내의 말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덕분에 마음 고생 없이 사랑 받고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은 큰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이고 사찰에서 절 살림을 맡아 해 오신 친정모친의 영향이 컸습니다. 때문지 않은 신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는 불자입니다. 사는 동안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자녀교육의 지표였습니다.

어느 날 절에 함께 다니는 도반으로부터 적십자봉사 활동을 권유 받아 봉사현장을 누비고 다닌지 20년이 넘었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상을 받으려고 봉사를 한 게 아닌데 한 우물을 판 결과인지 선행을 인정받아 적십자 총재상과 복지부장관상을 받는 영광을 얻기도 했어요. 아들 셋은 자립을 시켜 각자 살만큼 살고 있고 그저 인재양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 남편과 함께 못다한 여행도 다니며 노후를 여유 있게 즐기며 부푼 꿈을 꾸고 있을 즈음 언제나 늘 내 곁에서 건강하게 날 지켜 주리라 믿은 남편의 몸 상태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지요

병원 진단결과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물리 쪽에 천재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석했던 남편이 치매라니요. 밖에 나가 집도 찾아오지 못하시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현실 앞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 상상 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치매환자는 남이 간병하는 것보다 가족이 사랑으로 간병하는 것이 여러모로 다르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기에 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제가 돌봄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부처님 하느님 옥황상제님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제발 치료가 되어 집에서 저와 함께 살게 해 달라는 애원도 하고 기도도 했지요. 가족 챙기고 자식교육비에 당신을 위해서는 돈 한번 흠족하게 써보질 못했는데 어찌 하오리, 어찌면 종단 말입니까 저 역시도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사람이기에 지금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무리를 하면 안 되는 형편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집 가까운 시설에 입원시켰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하던 중 수발을 하는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몸져 누울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 때 머리를 스치는 인연, 평등각보살이 생각났어요. 정토마을 화주보살. 20년전부터 봉사현장을 누비던 소중한 인연입니다. 울면서 하소연하는 내 사정을 다 듣고 난 평등각의 권유로 자재요양 병원에 남편을 입원시킨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3년이 지난 지금은 마누라만이라도 알아봐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남편의 몸 상태는 악화만 되어갑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시설이 깨끗하고 환경이 환우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직원들이 친절하여 환자가 안정을 찾고 병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에 이사장님과 대중스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함을 전하며 부처님의 인연법과 인과법을 귀히 여깁니다.

남편은 평소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지 못했는데 돈을 돈 답게 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이운을 해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사리함을 시주를 하시면 어떠한 평등각 화주보살의 말에 흔쾌히 남편이름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주불과 삼존불 불사를 남편을 위해 해드리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일중에 남편을 위해 선근을 지을 수 있는 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곳 정토는 나의 수행처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의 편안한 회향을 위해 기도 하며 이사장님의 원력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한 평등각 화주보살과의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늘 감사하게 생각하여 하는 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연꽃이 진 정토마을 들이 웬지 쓸쓸하여 꽃집에 들러 국화화분을 여러 개 사왔어요. 요소 요소 장엄을 해 보았습니다. 가을 국화가 유난히도 화려하네요. 저 국화를 보면서 환우들이 마당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 즐거워하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7 화성유품

- 하근기 중생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야기

첫째주제. 대통지승여래와 16왕자의 성불인연

- 인연설주(因緣說周)의 시작

묘법연화경 제 3권

第七. 화성유품

서봉반산(瑞峰盤山)
스님

1)대통지승불의 전생인연

이제 화성유품化城喻品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화성유품부터는 인연설주因緣說周에 해당합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주설법三周說法の 세 번째 순서입니다. 법설法說과 유설喻說에서 알아듣지 못한 중생들에게 또다시 부처님은 고구정녕 하게도 감로의 자비를 베푸사 구체적 인연 사례를 들어 기어코 중생이 알아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랜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문을 읽어볼까요.

7-1

과거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지 겁에 한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은 대통지승大通智勝 여래 응공 정등각이라 …… 비구들아, 그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이니, 비유컨대 3천大千세계의 모든 땅을 갈아 먹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동방으로 1천 국토를 지나 티끌만 하게 한 점 떨어뜨리고, 또 1천 국토를 지나 한 점을 떨어뜨리며, 이와 같이 하여 땅으로 된 먹을 다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 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더 오래 되어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겁을 지났느니라. 나는 여래의 지견知見의 힘으로 그 오래된 일을 오늘의 일처럼 볼 수 있느니라.”

7-2

지난 세상 생각하니 한량없이 오래인 겁 한 부처님 계셨으니 그 이름 대통지승.

我念過去世 無量無邊劫에 有佛兩足尊하시니 名大通智勝이라

7-3

여래께서 열반하심 그보다 수가 많아 한량없고 가이 없는 길고 먼 겁이니라.

此諸微塵數에 其劫復過是라 彼佛滅度來는 如是無量劫이어든

2)십겁의 수행 끝에 비로소 성불하다

경문에서는 대통지승여래가 오랜 세월 수행하였지만 좀처럼 불도를 이루지 못하다가 10소겁 지난 뒤에 비로소 성불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7-4

“그 부처님께서 처음 도량에 계시어 마군들을 파하고 아نوات타삼약삼보도를 얻으려 하나, 모든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1소겁으로부터 10소겁 동안을 가부좌 틀고 앉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되, 역시 부처님의 법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 부처님께서서는 그 자리에 앉으사 내가 반드시 아نوات타삼약삼보도를 얻으리라 하시니, 이 때 여러 범천왕이 많은 하늘 꽃을 내리는데 그 높이가 1백 유순이나 쌓였느니라. … 여러 비구들아, 대통지승 부처님께서서는 10소겁을 지나셔야 부처님의 법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 아نوات타삼약삼보도를 이루었느니라.”

3) 16왕자와 범천왕이 청법하다

이렇게 진점겁전(塵點劫前)에 성불한 부처님인 대통지승여래에게는 출가하시기 전에 열여섯 왕자가 있었습니다. 만아들 지적(智積) 등이 모두 아버지가 성불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있던 모든 귀한 것을 버리고 따라 출가하여 모두 보살사미가 됩니다. 보살사미란 대승법을 구하기 때문에 보살이라 한 것이요, 사미는 나이 어린 까닭에 그렇게 호칭한 것이라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모두 찾아뵙고는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럴 즈음 시방의 여러 국토에서는 세상이 온통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광명이 비치니까 무슨 일인가하고 물려드립니다. 그래서 법회광경을 보고 모두 따라 법륜을 청하게 됩니다.

7-5

우리의 궁전마다 일찍 없던 이 광명
그 인연 무엇인가 서로 함께 찾아 보자.

我等諸宮殿에 光明昔未有라
此是何因緣가 宜各共求之^{로다}

7-6

대덕이 나심인가 부처 출현 하심인가
이렇게 큰 광명이 시방 세계 밝히누나.

爲大德天生인가 爲佛出世間인가
而此大光明이 照於十方^{이어뇨}

체적인 뜻으로는 부처님 법 따르지 않고 샅된 법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정진하신 대통지승불의 용맹한 정진의 힘을 우리 불자들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다가 갑자기 찬연한 광명이 비치자 모두들 놀라고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 성도를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보여준 위의 장면은 시방의 범천왕들이 열여섯 왕자들이 부처님께 법문 청하는 장면을 알고 자신들의 궁전까지 공양하면서 대통지승불께 청법하러 가는 부분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런 청법과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법화경을 신앙하여 법문 들으러 오는 장면이 너무 좋고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7-7

원하오니 세존께서 무상 법륜 굴리시어
법복을 울리시고 큰 법라 부시며,
법비를 널리 내려 중생 제도하여 주심
귀의하여 바라오니 연설하여 주옵소서.

唯願天人尊은 轉無上法輪하사
擊于大法鼓하시고 而吹大法螺하시며
普雨大法雨하사 度無量衆生하실새
我等咸歸請하노니 當演深遠音하소서

7-8

고통 받는 여러 중생 불쌍하게 여기시어
최정각을 이루시니 저희 마음 즐거웁고,
이러한 공덕으로 일체에 보급하여
저희들과 여러 중생 부처님 도 이룰지어다.

哀愍諸衆生일새 故現於世間하야
超出成正覺하시니 我等甚欣慶하고
願以此功德으로 普及於一切하야
我等與衆生이 皆共成佛道하야지어다

법화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부처님 진신이라 하는데, 그 소중한 경문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자세히 서술하는 데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소원입니다. 되도록 많은 대중이 모이도록 법회를 열고 불탑과 법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두에게 보급하여 함께 성불하도록 합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4) 태어나는 세상마다 법화경을 설하리라

7-9

그 때 대통지승여래께서 시방의 여러 범천왕과 열여섯 왕자들의 청을 허락하여 받으시고 12행의 법륜을 세 번 설하셨으니, 사문이나 바라문 혹은 천상이나 마군이나 범천 그리고 다른 세간에서는 능히 설하지 못하느니라. 그 여래께서 설하시기를 「이것이 고고하며, 이것이 고의 모인 것이고, 이것이 고의 멸함이며, 이것이 고를 멸하는 길이니라.」 하시며, 또한 12인연의 법을 설하셨느니라. 「무명은 행을 인연하고, 행은 식을 인연하며, 식은 명색을 인연하고, 명색은 6입을 인연하며, 6입은 촉을 인연하고, 촉은 수를 인연하며, 수는 애를 인연하고, 애는 취를 인연하며, 취는 유를 인연하고, 유는 생을 인연하며, 생은 노사·우비·고뇌를 인연하느니라.」

청법의 의식이 끝나고 경문에서는, 「세존께서는 이때에 사성제를 세 번에 걸쳐 설하였으며, 12인연법을 설하시고 이렇게 2만 겁이 지나도록 설법하셨는데, 나머지 많은 중생이 의혹을 가진 것을 아시고 다시 8천 겁 동안 법화경 설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고 했습니다. '사성제를 세 번 설한다'는 것은 시전 권전 증전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시전(示轉)은 「이것이 고요 집이며 멸이며 도이다」 라고 보여주는 단계요 권전(勸轉)은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계이고, 증전(證轉)은 스스로 고를 알아, 집을 끊고, 멸을 증득하기 위해, 도를 닦는 것[知苦斷集, 證滅修道]을 보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밝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열반에 드셔서 8만 4천 겁 동안 선정에 들어 열반하신 후 16왕자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연이어서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왕자의 법화경 복강(覆講)'입니다. 마치 앞의 서품에서 일월등명불께서 입적하자 묘광(妙光) 보살이 2만 겁 동안 여덟 왕자를 대상으로 법화경을 강의하는 장면과 많이 닮은 광경입니다.

7-10

“부처님은 또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열여섯 보살은 항상 《묘법연화경》을 즐겨 설하여 낱낱 보살이 교화한 6백만억 나유타 항하의 모래 같은 중생들은 태어나는 세상마다 보살들과 함께 나서 그들을 따라 법을 듣고 다 믿어 이해하였으며, 이런 인연으로 4만억 여러 부처님 세존을 만나 보되 아직도 다하지 않았느니라.」”

또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가락국(迦洛國) 시절 수로왕과 왕비 허왕후가 살던 시절을 연상하게 됩니다.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여덟 왕자 중 일곱 왕자가 칠불암의 장유(長猷)화상을 찾아 모두 출가하여 차례로 성불했다는 '칠불암 연기와 아자방(亞字房) 설화'를 떠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칠불암은 이처럼 법화경의 대통지승불의 16왕자의 성불인연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덧붙여 여기서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고 불법이 잘 유통되지 않는 암흑세상에서 보살이 원력으로 불법을 지켜가는 모습[甘苦近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16왕자의 성불- 동북방에서 성불하신 석가모니

7-11

“그 부처님의 제자 열여섯 사미는 지금 모두 아숫타라삼약삼보디를 얻어 시방의 국토에서 현재 설법을 하되, 한량 없는 백천만억의 보살과 성문이 그들의 권속이 되었느니라...”

둘째 주제. 화현한 성의 비유[化城喻]

1) 2승 열반은 진실이 아니라 1불승이 진정한 열반이다

그리고 이어서 2승의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며 오직 1불승의 열반이 진정한 열반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7-12

“그 때 교화한 한량없는 항하 모래 같은 중생들은 바로 너희들 비구와 내가 멸도한 후 미래의 세상에 날 성문 제자들이니라. 내가 멸도한 후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보살이 행할 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마땅히 열반에 든다는 말을 하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름을 달리하여 성불하리니,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었으나, 그 국토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구하여 이 경을 얻어 들으리라. 그러므로 오직 불승으로써 멸도를 얻을 뿐 그 밖에 다른 승은 없느니라.”

2) 화성은 3승 방편, 1승 진실을 비유

위의 말씀을 비유로 다시 설하기 위하여 7가지 비유(法華七喻) 중의 하나인 네 번째 화현한 성의 비유[化城喻]가 설해집니다.

7-13

“비유하면, 5백 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사나운 길에 인적마저 끊어져, 무섭고 두려운 곳을 많은 대중들이 이 길을 지나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가려 할 때 한 도사가 있었으니, 지혜가 총명하고 밝게 통달하여 그 험난한 길의 풀리고 막힌 모양까지 잘 알고 있어,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인도하여 그 험난하고 사나운 길을 통과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거느린 바의 사람들이 중도에서 피로함과 게으름이 생겨 도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극도로 피로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능히 나아갈 수도 없으며 앞길이 아직 머으니 되돌아가려 하나이다.』하였느니라. 이 때 도사는 방편이 많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 도중에 한 성을 변화시켜 만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두려워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제 이 큰 성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지니, 만일 이 성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즐겁고 안온하며 또한 앞에 있는 보물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능히 갈 수 있으리라.」 그 때 극도로 피로해진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이것은 《미증유》라 찬탄하고, 「우리들은 이제 사나운 길을 면하여 즐겁고 안온함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느니라.”

이 비유 중의 인도자란 곧 부처님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대도사(大導師)가 되어 그들을 생사 번뇌에서 구제하려 하십니다. 그로 인해 만일 1불승만 설한다면 중생들은 멀고 힘들어서 이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물러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중도에 임시로 휴식처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유여(有餘)열반 또는 소승열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최후의 열반, 곧 완전한 깨달음으로 알고 안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도자는 곧 변화로 만든 성을 없애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 떠나자, 앞으로 조금만 가면 보배 있는 곳이 나올 것이다. 아까의 큰 성은 내가 변화로 만든 것이니, 그대들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 화성의 비유는 2승이나 3승의 열반은 진실이 아니요 부처님이 임시로 방편에 의해서 시설한 것이니, 곧 1불승의 열반 곧 중생을 자비로 구제하는 보살도 실천이 곧 완전한 열반[三乘方便 一乘眞實]이라 비유한 것입니다.

3) 대통지승불은 십겁의 오랜 수행 끝에 성불하신다

앞에서 우리는 수행을 시작한 대통지승 부처님은 한 곳에 앉아 오랫동안 수행한 끝에 비로소 성불하심을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하근기들이 세간법에 탐착하고 번뇌가 많은 까닭에 쉽게 정법에 들어오기 어렵지만, 꾸준한 인욕정진해 가면 머지않아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며, 과거의 대통지승불을 비롯한 부처님들도 이런 어려운 수행 끝에 성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근기 중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7-14

대통지승여래께서 도량에 앉아 10겁 동안 부처님 법 보지 못해 성불을 못하거늘
 大通智勝佛이 十劫坐道場호대
 佛法不現前일새 不得成佛道어늘

7-15

10소겁 지난 뒤에 부처님 도 이루니 하늘과 세상 인간 마음들이 기뻐 뛰네.
 過十小劫已에 乃得成佛道라
 諸天及世人이 心皆懷踊躍하니라

여기서 첫 계승과 관련하여 《선문염승》을 잠시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염승拈頌 제40칙則에 의하면, “대통지승여래가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도를 닦았는데 어째서 도를 이루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화두의 의심할 곳입니다. 어떤 선사는 “마치 법씨를 뿌렸는데 콩 싹을 기대함과 같고, 모래로 밥을 지으려 덩비니 어찌 이를 수 있었으랴!” 고 법문합니다. 마치 석존께서도 6년을 일구월심(日久月深) 수행하다가, 고행에 지친 몸을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으로 기운을 차리고는 7일 동안의 용맹정진 끝에 성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끈기와 인내와 함께 즐기찬 노력을 통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오랜 수행을 통한 성불은 사람의 일생이 한 번뿐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런 경전공부를 하면서 현대의 우리는 지나친 생존경쟁 속에서 살다보면 사람들은 불법보다는 세상의 금전이나 권력의 힘만을 믿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일생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다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스스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불교를 믿으면 ‘살아서는 편안하고 죽어서는 다음 생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現世安隱 後生善處]’ 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랜 세월 연기법을 믿고 정진하는 문화, 부처님 진리에 의지해야만 인간다운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마침내 훌륭한 인격을 함양하고 성불에 이르게 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문화를 불자들이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47기 생사의 장을 다녀와서……



노혜진

47기 생사의 장 수료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의 죽음, 부모의 죽음을 이야기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사실 죽음을 그렇게 많이 직면하지 못했던 나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제대로 봐 줄 수 없었고 나 또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다.

생사의 장을 통하여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나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상담에서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내담자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자 생사의 장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생사의 장을 신청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생사의 장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분노, 슬픔, 아픔을 승화시켜 주는 시간이었다. 원망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감추어져 있었던 분노를 토해내는 과정들을 통하여 몸도 마음도 가벼워 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 신기한 것은 나는 죽음을 직면하러 왔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크게 와 닿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집착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내 아이에 대한 집착, 나에게 대한 집착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나를 보게 되었고 앞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의 죽음에 한걸음 한걸음 직면하면서 삶에 대한 큰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1학기 기말세미나를 마치며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재학생

서 두 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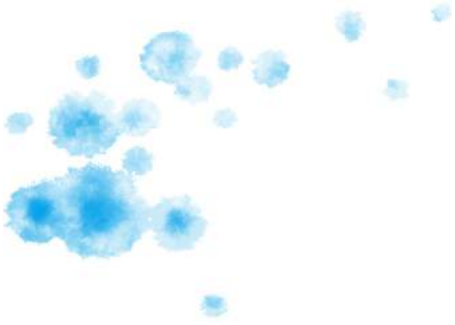
새싹이 파릇파릇 돋듯 삼월의 학교생활의 시작은 푸름 그 자체였다. 연푸름 사이로 비친 햇살만큼이나 신입생인 나에게도 열정이 쏟아 내렸다. 그렇게 시작된 푸름은 사월과 오월이 지나고 유월의 막바지까지 짙어가고 있었다.

짙은 푸름이 익어갈 즈음, 기말세미나 발표가 있었다. 1학기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자 자기방식으로의 주제를 정하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발표를 한다는 것도 부담되었지만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대상관계 관련된 심리내용, 유식학, 종교의 흐름 등 여러 주제들이 나에게 물음을 던져주고는 시간이 확확 지나가 버렸다.

그런 나에게 ‘생사의 장’ 특강체험은 기말세미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었다.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발표 준비를 하였다. 핑계를 대자면 준비할 시간이 짧아서 이론에 대한 이해를 숙지하기보다 발표할 자료를 만드는데 급급하였다. 이 자료로 발표를 하자니 잘하고 싶은 욕구와 잘해야 한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 ‘있는 그대로 하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마음을 다스렸다.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수용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서 드디어 기말세미나 시간이 다가왔다.

기말세미나에 장익 위덕대학교 총장님과 김경일 교수님, 권기현 교수님, 김문정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다. 이태승 교수님께서서는 다른 일정과 겹쳐서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묻고 피드백을 해 주시는 등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였다.

대학원 선배님들의 세미나 발표를 시작으로 신입생들, 생명교육전문가 선배님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주제와 각기 각색의 생각들이 교실 안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내 안에도 스며들었다. 발표하시는 분들과 교수님들의 피드백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 생각의 나눔은 경계를 세워 둔 긴장감을 스르르 녹여주었다. 사유할 여유를 머무르게 하였다. 고마웠고 감사했다. 그리고 소중한 만남이었다.



기말세미나를 마치고 뒤풀이 장소에서는 교수님과 선후배님들과의 수다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발표한 소감과 1학기 동안의 느낀 것을 나누고, 오고 가는 대화 너머에는 학문과 삶에 대한 물음들이 화두로 남으며, 배움에 대한 길 위를 함께 거닐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소감을 나눌 때의 교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고요한 바다를 시작으로 거센 파도와 같이 일렁이다가 다시 고요한 바다로 닻을 내렸다. 유머와 재치 그리고 사랑은 또 다른 행복함을 주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하고 고요하리라.

유월의 마지막 날, 진하게 푸른 세상에 우리들은 한 알, 한 알 여물어가는 청포도 같았다. 그렇게 알알이 터질 듯, 청포도가 익어가는 칠월을 마주하였다. 한 송이 청포도같이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주 정토마을 염불禪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현재의 삶 안에서는 기쁨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 몸을 벗어나는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러운 벗어남을 통해 정토에 왕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염불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청주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염불禪수행안내

- 일 시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PM7시~일요일 PM1시(2박3일)
- 준 비 물 : 천주염주, 개인 물병, 무릎담요, 염불선복 또는 편안한 복장
- 동 참 비 : 5만원
- 장 소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 접수문의 : 043-298-2258, 010-7305-4935 무량지
전날 입교 가능,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청주가경터미널 또는 KTX, SRT기차
오송역을 이용하시면 정토마을 차량을 운행합니다.
- ▶ 정토마을 차량 운행시간 청주가경터미널 오후3시, 오후 5시20분
오송역 오후6시



불교 임상기도집

1권 정가 45,000원



영혼을 밝히는 빛의 소리 임상기도 CD

CD 4입 1패키지 정가 25,000원

다양한 염불과 진언이 담긴 CD를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염불과 진언으로 충실하게 엮어 낸 임상기도CD는 개인의 수행과 심신의 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환자 및 죽어감의 여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해설집과 해설 트랙이 담겨 있어 매우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오래도록 이 CD를 기다리게 하여 또한 송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토마을 자재병원장 능행 합장

구입 문의 : 카 페 밀 052) 255-8596

카페밀의 수입금은 장학사업과 승가의 복지를 위한 따스한 후원의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기부

나의 헌신과 사랑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 위에
희망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200만원이상의 기부
6월~10월까지

혜솔스님, 수환스님, 혜공스님, 원겸스님, 혜경스님, 혜덕스님,
자인스님, 울산보현회, 이말순, 이남이, 흥경자, 윤미자, 신동희,
전기범, 박쌍순영가, 이지원영가, 자비실천모임, 금강 반야사,
이숙자, 조민동, 이종철, 조유경, 이주현

그리고 여러분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정토가족

2018년 6월

신혜경 박영심 조선주 전정순 곽갑례 송숙
 강래원 강성욱 서범규 이남운 김영미 안미숙
 김화연 박의석 박현주 조세원 홍미영 조은희
 김영희 김수연 배우주 최현준 임소옥 임흥광
 임영희 김희균 최금숙 조성미

손석진 손혜련 조성두 백련사 최진호 최영원
 서지인 윤강순 김경민 홍현예 원도연 권순철
 권윤지 이인학 박영태 황으뜸 광민정 주영심
 손석진 손혜련 조성두 백련사 최진호 최영원
 우화법사 이동식 남해인 이동현 김경숙 이경숙
 백영수 박태수 문순복 김훈찬 이금희 정경희
 이은정 서영애 안지현 정군자 임선주 심규석
 심현지 심수현 정경준 정다인 이민정 최숙경
 이상부 박지문 주락기 정해경 최용규 임인수
 김경일 정경숙 박경희 이화진 김은선 강현수
 강준혁 심경옥 주봉현

2018년 7월

박인순 박해동 김영수 김명철 김영자 장윤석
 김연옥 김천권 최상숙 김미옥 김창용 김분태
 최순희 류양숙 신민정 이해옥 김묘정 김과영
 이경숙 상호소님 송여여성 최원옥 정지경 이외선
 이수진 김동철 강옥주 이재우 이명숙

2018년 10월

채행자 유동숙 성의경 정혜영 김정숙 김윤철
 하경선 이순교 유정미 김현아 강영자 정해준
 임병돈 중본소님 송기봉 마성욱 이명호 민동석
 민소운 김다영 하희수 권기현 김기자 최태영
 민규량 엄상철 신경자 이정옥 김지호 김옥희
 양순이 김정식 안수연 최갑락 윤상란 제승우

2018년 8월

이정희 권명란 김순수 김소선 배건해 우정애
 송영림 고정희 이미경 이춘희 서두련 한현아
 류선희 이진숙 장영숙 박성룡 노정자 지관스님
 구시웅 이해란 윤양경 김숙현 김남양 흥경자
 이효선 김진옥 정혜원 김태형 이해정 안해숙
 김명선 김도희 하강수 김경매 여환민 노창길
 김동혁 강동협 문명숙 이월연 최예현 박지수
 이봉규 허승희 한주영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후원

2018년 10월

홍금미 정영심 강기형 강남영 강도영 강병철
 부옥여 강옥숙 손묘목 권기대 김상용 차상용
 김갑근 신을단 박도훈 김경원 신순애 이금순
 김순애 정숙란 장윤희 장호성 고필선 장아영
 고병효 홍정숙 고영자 고유범 이상식 권영현
 현미옥 김동주 박영환 박태진 박은영 현정희
 안순영 유윤주 김해숙 이해원 이진석 김봉선
 고미덕 강옥련 이정순 김길례 김명순 박정민

2018년 9월

홍무영 박은숙 성환익 윤길라 박태순 임양숙
 김채윤 윤지영 박신주 박덕승 손삼경 박주영
 원갑수 고은화 심오관 최한섭 천승택 이의열
 김나은 김은구 김다운 이선하 하주연 박희란
 권경희 김진숙 홍영애 유현지 신애경 서춘선
 오연이 박채영 이진원 김영옥 성미숙 손예림
 박기정 이윤정 유명금 변미자 김명숙 김호순
 김계화 진영순 서미혜 서천길 강기자 권인숙
 광보정 김고운 김지현 최희정 황영철 황영창
 이민호 백서영 최복숙 한다겸 김순애 방곡지
 임정례 유우선 오경석 정경식 홍양희 김정자
 서지인 윤강순 김경민 홍현예 원도연 권순철
 권윤지 이인학 박영태 황으뜸 광민정 주영심

108병상

2018년 6월

이성철 조애순 박준형 이민재 이해원 조애순
 이상필 박정란 임정호

2018년 7월

이숙자 임판석(영) 도정자 오정숙 이상준 박향이
경덕스님 김지영 신춘이 오근석 진현정 홍정선

2018년 8월

노정자 이종규 하영지 이은희 정정하 이임성

2018년 10월

박혜영 천필순 서병운(영) 박점자 박순희

일시후원

2018년 6월

배선표 엄익철 박경자 김화연 라명실

2018년 7월

김창일 정사순 강동화 김민출 정순호 상북농협
하나로종합가구 김유한 송만오 이범수 이주현
김상순 문쌍부 (주)진우폴리텍 김주성 박충현
유순희 박쌍순 자재요양병원 원무과

2018년 8월

최혜영 김순옥 마경미 웰니스병원 자비실천모임

2018년 9월

변태조 광문자 이주현 홍경자 이영옥 김규선(영)
최영근 이현숙 익명

2018년 10월

박자비성 박범곤 박무임 부산민들레 류재학 류태돌
차정화 박영희 김경석 송정교 윤종현 장교진
윤은숙 윤창준 강세훈 박순순 장진옥

의약품

2018년 6월

김보령 김숙희 오지수 홍명덕 강정숙 이한길
김지영 김경희 이장천 황유순 국인호 국지현
최창숙 서경스님 김순자

2018년 7월

김지희 김경옥 주지영 상호스님 범해스님 운영택
박윤경 김미정 이상백 여친스님 이은재 안혜경
허준열 정경아 성상철 이재복 이영실 김길자

2018년 8월

홍경자 이주현 강성봉 임평환 조성미 최종섭

김명숙 해광스님 김덕광 이나영 윤춘자 이영우
김경일 김희정 김두희 이소령 정인환 김윤하
권지연 전옥녀 이의열 원겸스님 권기태 정교경
조민동 박지영 정기호 박유희 김옥자 정운수
안정미 안제영 이경신 안혜란 정유철 이규화
김남숙 이규빈 김채운 김창덕 나혜선 김근아
김도희 김동호 방성도 안희열 안진국 김정희
안지현 티*한 금강반야사 박노미 웰니스병원 김혜숙
익명 서영준 이지원(영) 홍기천 김병조 전세준
박혜준 전해운 장명자 김시영 연우희

2018년 9월

최인정 범아스님 이연희 이애리 이순자 나민순
이영애 수환스님 장한바다 김창기 노혜숙 손태숙
최선희 손옥무 손기모 권나은 권도현 권덕
김민정 정형숙 안진영 권정희 여운포 김정화
박우석 신지원 이을주 송경선 신동현 정은진
김선희 박준석 박시훈 박성훈 익명 이우상
장정숙 서인철 김창옥 광노상 제재행 현병기
금강회 최문자 보향각 김하자 서정희 박혜지

2018년 10월

민숙희 신주원 신명은 김영두 강숙자 최금란
강희정 이용순 김대성 차기숙 김영란 김문희
김윤주 박선영 임남환 김명진 신영숙 김경원
김효빈 김형우 강지은 이명자 해공스님 남방자(영)
용석주 서경주 용채연 용준우 방무임 정태숙
윤성자 민대홍 강모란(영) 정인실 북천사신도회
김민옥 송금자 원복수 장준호 김용주 오선호
김지영 양소영 권용순 김천택(영) 최철화 송기옥
(주)해원수산 중소기업은행(연양) 박세정 권영목 이우련
상북농협 하희수 박광연 이정옥 김선희 서순자
박현정 김옥복 김선옥 익명 이영균 성현숙
변유정 우대석 김성규 오선자 김경우 서연희
윤연숙 박지현 배병원 배민성 배민지 박찬익
황다원 신명숙 이미향 강유권 천우화 박원석
이창호 황경태 이미희 윤지영 윤현지 조진우
임예진 길동일 길유현 길형섭 정남희 노영숙
송현주 황은실 석상옥 정한채 김계숙 김영임
박소희 이해경 황은지 김영순 박연주 박현숙
김석중 박금자 교육생일동 박정현 정정화 김정옥
송갑순 김순래 천효정 남중숙 정미성 전기범
김증자 서미경 광미경 김희년 김금자 조희택
김계현 남선희 자인스님 최원옥 김정희 정찬중
김혜숙 강정수 광근 김진호 조민경 김선희
유준택 이현실

인도 의료봉사 의약품 및 물품후원

수환스님 혜경스님 법왕사신도 정안심 최영희 함광무(영) 최진식 현공스님 고성현 송화정 홍찬식 송수정 정동욱 정효은 정선호 이대각행 박래현 지혜경 도광스님 강민정 김명선 정순옥 웰리스병원 한마음선원 상호스님 김월남 김정순 손삼경 박비송 박영희 차상용 남금자 유현진 정춘순 조민형 김현우 김충례 홍영주 불심회 이주현

법화경 법보시 동참

수환스님 원겸스님 상호스님 혜덕스님 도우스님 석도연스님 이종철 박은숙 한행자 이경신 임수점 김남숙 이익권 황연옥 김채운 김창덕 김근아 나혜선 자명화 임정임 최혜연(영) 임태호 박정자 이창호 황효순

정토마을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땅1평

2018년 6월

김영미

2018년 7월

윤휘찬 윤솔아 안길자 김경희(영) 강정숙 정찬중 김태임 강형원 김민수(영) 강누리(영) 사랑이(영) 김순옥(영)

2018년 8월

조유경 박상현 박서준

2018년 9월

허산 설동호 도광스님 김운식

2018년 10월

곽이성 한은정 박봉수 엄상철 임예진 이영순

희망시멘트

2018년 7월

박영교

법당불사

2018년 6월

이상기 김경자 서상덕 김미숙 최택천 최준길 구경희 박주영 손삼경 박덕승 박신주 장광대 배원규 김윤희 이명자 진금선(영) 고윤석 최윤하(영) 임수영 김도현 양재호 구순희 박유희 원복수 장정숙 황정옥 이소령 장재성 울산보현회 이말순 김미정

2018년 7월

석운스님 송유섭 한정옥 윤희연 주연 이연진 문쌍부 윤성현 정훈 강문팔 이일수 이미정 신명숙 김개천 주원미 김대수 조효제 정민 윤용채 이도엽 박순화 박소연 이상준 김종진 조효민 신주원 신호봉 신은희 박명자 신중기 유순희 송기동 이경미 김민운 도르제린포체 익명 이정달(영) 최순희 조용걸 최현우 혜공스님 윤미자 이지원(영) 황효순 이남이 박윤경 정경아 이숙자 신동희 익명 정일스님 김영숙 한상호 김선희 대만불자

2018년 8월

박쌍순 김성국 김명선 김남영 김태원 김기석
최재혁 최보경 김재녀 최기락 윤다정 권지향
임흥상 윤주의 예술스님 원겸스님 박쌍순(영)

2018년 10월

신근우 이상백 김영임

2018년 9월

이석춘(영) 조명진 최인정

정토마을에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2018년 6월

도연스님 울산보현회 김정순 노기동 최무익
박무익 남정애 울산선우회 도활스님 노외섭
김제준 김희자 남정애 정순옥 원찬스님

2018년 9월

이영실 이주현 노기동 현불회 정우에너지 김석중
황순남 태감스님 도활스님 전옥녀 동수참기름
매일떡집 반여시장과일 남부식품 정경미 울산선우회

2018년 7월

부산보현회 전환스님 황유철 서미자 노기동
이복연 홍경자 해운스님 서진스님 도운스님
박주영 해경스님 윤정숙 이의열 오형자 광미경
광미경 박연주 여친스님 황다원 최영원 장명자
명진모 만옥스님 박민희 김용수 정교경 울산선우회

2018년 10월

엄주수(영) 엄상철 김선옥 서희숙 김기동 이만우
고춘숙 이명자 손삼경 고윤옥 증명스님 이창호
진말숙 최정석 김진홍 허정석

2018년 7월

이만우 대전관음사 영학스님 해경스님 노기동
현불회 울산선우회 강변커피 태감스님 이현지
안미숙 대전관음사 지허스님 운문사 대구대원사
문쌍부 김창옥 김봉삼 현불회 한현아 박인숙
김진홍

들 국 화

목탁 송인영

정신 풀어헤치고 헤메듯
 펼쳐진 연보랏빛 바다에
 차가워진 달빛마저 설렌다

노래인 듯 웃는 듯 재잘거리며
 휘 나는 뭇 새들도 제자리 찾는데

시선도 관심도 남의 일인 양
 초연하게 구름 향해 머리 흔들며
 여린 줄기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서늘한 고뇌에 진저리 치는 그대

솜털을 끝에 매단 억새
 그 꿈은 곁에 기대어
 혼자만 삭히는 그리움 삼키면

톡 지지 못하고 하나 둘 이 빠져
 늦가을 속으로 곧게 선다

차가워지는 시간들 속 피워지는 사연 듣다가
 계절에게 어느 길목에 선 나를 물으면서
 긴 생각으로 화첩을 만들어

뿌리만 두어지는 아쉬움에
 그마저 因緣이라고
 한 생각 돌리고 서면

계절의 빗장은
 열은 향기 속으로 교차되어
 저리도 얼룩져 녹아내리는데.



-내가 함께하고 싶은 기도-

동지. 호마기도 오는 길 안내

찾아 오는 길 KTX 울산역, 시외버스정류장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찾아오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접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일 시 2018년 12월 23일(일요일)10시
기도동참비 (기도비 및 화공양물비) 10만원
문의 접수 052) 255-8588
010-2926-8500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10차)백일기도 봉행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중생의 고통과 업장을 소멸시키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을 청하는 천수다라니 500독 기도 정진에 초대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매 순간, 불은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 **기도입재일** 2018년 9월 22일(양) 회향일 2018년 12월9일(양)
- **기도동참비** 300,000원(분납가능)
- **접수문의** 052-255-8588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2019년 정토마을 인등접수

인등 기도
꺼질래야 꺼질 수 없는 등불 하나
이 자리에 오롯이 밝혀 놓으니
나의 정성이 공덕의 열매로 익어지소서.

정토마을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정토마을 부처님 전에 모셔질 인등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등이란 부처님께로 한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등불로써, 인(引)은 끌어들이는 자로 복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등을 밝히는 공덕은 천안을 얻으며 무명이 타파되어 사후엔 천상에 태어나 구경에는 성불한다 하였습니다. 정토마을 법당에 가족 인등을 밝히어 공양하신 공덕으로 2019년 한 해도 부처님의 가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정토마을 대법당
- **동참금** 1인 월 5,000원 (연 60,000원)
- **계좌번호** 농협 351-0661-9836-63(예금주:정토마을)
- **문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T.052-255-8588

동지기도

무술년 동지를 맞이 하여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무량한 공덕을 짓게 하는 동지기도를 봉행합니다. 지난 해를 참회하면서 염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동지 기도법회에 불자님을 모십니다.

- **일 시** 2018년 12월 22일 오전 10시~오후 7시 (철야 법화경28품 완독)
- **기도동참비** 50,000원
- **접수문의** 052)255-8588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호마특별기도

호마는 인도의 전통적 기도법으로 밀교에 수용되어 많은 세인들의 재앙을 막아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준 특별기도이다. 호마기도의 전수자인선 놀소 큰스님께서 정토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사, 기도에 장애가 없이 원하는 바가 소원성취할 수 있게 일체의 마장을 없애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인연복이 있으신 불자님께서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진신사리봉안 100일기도

스리랑카 정부의 배려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여법한 이운식을 마치고 정토마을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10차에 걸쳐 100일기도를 봉행해 오던 기도가 천일 회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소원성취를 기원 드리며 2019년 진행될 법당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합니다.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정토마을 소의경전은 법화경입니다. 천일기도를 세 번 회향하고 4차 천일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베트스님들과 대중스님들께서 함께 기도를 이끄시며 소원성취와 일체 업장소멸기도입니다.



수행과 돌봄이 함께하는 정토마을 소식

정토마을은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끌어집니다.
환우들은 자원봉사장의 미소에 기운을 내고, 정토마을의 구석구석은 당신의 동참으로 밝아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후아유

박소라회장

매월 정기적으로 10~12명 정도 항상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4주차(일) 병원 환우님들과 1:1 참여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인형 만들기 등등 재능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비공덕회

김계수회장

매월(4주, 토) 정기적으로 항상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불기 닦기 등 교육원, 미세먼지청소, 식사보조, 주변환경정비 봉사참여 합니다.



하하하예술단

김종광회장

분기별(3,6,9,12월) 항상 회원님들과 함께 환우분들에게 장구, 가요, 색소폰 공연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23일부터 25일까지 정토마을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약 18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1500포기의 배추김치와 100개의 무로석박이김치를 담아 저장고에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정토마을 후원가족여러분 김치 드시러 오세요.

이번김장에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



돈황 실크로드 성지순례

현장스님의 목숨을 건 구법의 행로를 찾아서 9일 동안 서안, 천수, 난주, 돈황, 투루판, 우루무치까지 총 2800km의 대장정이었다. 현장스님께서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대안탑과 법문사 지하보궁에 모셔진 부처님의사리탑, 중국4대석굴 맥적산 석굴과 세계8대 불가사의 진시황 병마용갱, 세계불교미술의 보고 돈황의 막고굴, 사막속에서 마르지 않는 초승달 모양의 호수 월아천, 장대한 천산산맥의 산정호수인 천상천지, 서유기의 무대 화염산, 수 천년간 내려온 사막의 지하수로 카레즈 등등 나열하기도 무궁무진한 순례 여정이였다.

누구나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국제의료봉사

남인도 대봉 로셀링사원으로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정토마을 의료봉사단 37명이 11.11일 출발하여 9일의 여정으로 의료봉사를 하였습니다.

의료봉사는 1,000명의 스님들에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3일간 진료를 제공했으며 내과와 초음파 진료를 비롯한 내과에는 중앙내과 박제후 교수님과 웰니스병원 강경숙원장님께서 한방진료에는 경주 꽃마을 한방병원 김동렬원장님과 인천의 김명숙한의 사선생님께서 진료를 봐주셨습니다. 주요 질병으로는 관절염, 냉병, 간질환, 피부질환, 위질환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호사 8명과 8명의 스님들과 재가자 17명 등이 이번 의료봉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 힌두어, 티벳어, 한국어통역에 대연스님, 지옥스님, 강봉스님, 발펜스님, 동의대학교의 정경태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번 2018년 남인도 의료봉사 인솔총대장소임은 김용주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남인도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소박한 나의 기도

혜원스님

정토마을 능행 스님과 함께 행보를 같이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그 세상속으로 조금씩 발을 내딛기 시작한지가 3년째이다.

올해도 역시 나는 36명의 대중들과 인도 남쪽 땅 티벳트 망명정부가 있고, 1만 7천 여명의 티벳트 스님들께서 수행하시는 대봉사원이 있는 맑은 도량으로 의료봉사를 갔다. 너무나 먼 길이라서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그냥 무심히 구도심을 안고 떠나보기로 했다.

국가를 잃고 인도로 망명하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중생들 돕고 보리심을 키우기 위해 목숨 걸고 히말리아 첩첩한 얼음산을 넘어 망명하신 티벳트 스님들께 나의 작은 마음을 나누어 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불법을 배우고 닦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보리심이 깨어나 이 풍진 세상을 향해서 보리나무가 자라나기를 서원하면서 가는 걸음걸음 가슴 가득히 설레임이 피어났다.

남인도 의료봉사는 1년 전부터 계획한 날짜인데도, 그 날짜에 떠나고 그곳에서 9일간 온전히 몰입하여 병든 이들을 돕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보살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상황들에게서 일체의 번뇌와 장애를 거두어 주셨다.

나의 지구는 평화롭고, 나의 삶은 지복하였다. 부처님께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이번 남인도 의료봉사여정을 경험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사무쳐 왔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릿속에 맑고 환해지는 느낌이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고 내가 경험한다.”

이와 같은 이치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통하여 나는 나의 마음이 내 주인이라는 보배로운 가르침을 선물로 얻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여정이었다. 또한 삼고팔난 구고구난 이생에서 경험하는 구도의 여정 안에서 보살의 길로 가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시는 스승님들께 눈시울을 적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의료봉사에 도움주신 모든 대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웠던 길 함께 걸어주신 도반님들의 환한 미소와 밝고 맑게 빛나던 그 얼굴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 자리 잡은 이번 여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사문인 나의 삶을 성찰해보기도 했습니다.

출가사문으로써 나의 보리심은 너무나 작고 여러개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무엇이 진정 일체중생들을 위한 길이였는지 반성해 보는 여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불경을 외우고 밤이 늦도록 불법을 토론하는 티베트스님들의 모습 속에서 공부는 저렇게 해가야 하고 수행 또한 저토록 치열하게 해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저에게 뿌리 깊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들었지만, 참으로 출가사문에게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원 합니다

삼보님전에 향사루어 절하오며...

출가사문이 되어 부처님 법 만난 것을 환희하오며

동지선달 폭풍 한설을 견디고 불법의 봄을 만나 이제부터 무럭무럭 자라나는 보리심을 잘 키우고 돌보아서 뿌리 깊은 보리나무가 되어 일체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보리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를

일체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체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출가사문 혜원 합장



정토마을과 함께한 남인도 드레퓌 로셀링 국제의료봉사

김용주 변호사

무식해서일까?

무조건적인 신심 때문일까?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현신하신 걸까?

나는 티베트 스님들은 인도북부 다람살라에서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토마을 자재병원장이신 능행스님께서 “남인도에 가면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정착 마을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그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 지구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마지막 보루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한 것이 9박 10일의 남인도 의료봉사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인연이 되었다.

목적지인 인도 남쪽 맨 끝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로셀링 병원까지 도착하는 데는 인천공항에서부터 39시간이 걸렸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그만큼 걸리는 먼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고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의료봉사에 사용할 각종 약들과 스님들께 드릴 일상용품들로 가득하였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의료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능행 스님의 대자대비심이 느껴졌다. 준비된 약품을 각자의 여행가방에 나누어 담던 풍경은 참으로 잊을 수가 없다.

여행가방에 약품들을 나누어 담고 봉사자들끼리 인사를 할 시간도 없이 비행기에 올라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하였다

밤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야 델리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고 보니 국내선으로 이동하여 무려 6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해야 뱅갈로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요령껏 공항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쉬는 등 마는 등 6시간을 기다렸다가 뱅갈로르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어찌 어찌 하여 뱅갈로르 공항에 도착해보니 켈커타와 달리 공기도 좋고 기온도 적당한 것이 98년도 부처님 성지를 순례했던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뱅갈로르공항에 내리니 우리일행을 기다리는 버스가 나타났다. 40년 전이나 있을법했던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들은 거대한 가방 수십 개를 옮겨 싣고 그 버스로 9시간을 더 달려서 로셀링 병원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함께 한 도반들과 인사를 나눌 수가 있었다.

집이 인천인 김명숙 한의사 선생님은 옛날 여권은 가져오셨다가 다시 집에서 새 여권은 가지고 오시어 비행기를 타시는 열정과 함께 경주 꽃마을 한방병원장이신 김동렬 선생님, 전 울산대 병원 박재후 선생님, 부산 웰리스병원 강경숙 선생님, 부산동의대학교 정경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박애정신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라는 마음과 함께 희망과 이타적인 삶을 보았고 청주 이진희 선생님을 비롯한 봉사자들과 정토마을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상봉, 김미정, 김미옥, 여명, 엄수현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장한 마음을 내어 그 먼 나라까지 함께 동행 하여 주셨다. 한 분, 한 분에게서 깊은 보리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 동행 하셨던 8분의 스님들의 헌신적인 보살행에서 불교의 비전과 생명력을 엿볼 수 있기도 했다.

나는 환자가 방문하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문진” 분야를 맡았는데 한국어, 영어, 힌디어, 티베트어 4개 국어로 이루어지는 환자문진이 가능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신기했다. 약국, 한방진료실 내과진료실 초음파진료 등에서도 만국의 언어를 동원하여 한마음으로 흘러갔고, 밤 9시까지 진행되는 고된 진료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도반들의 열정과 헌신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이타심에서 발현되는 연민과 자애로 가능하게 했으리라 싶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행군을 마다 않는 팀들이 지치지 않도록 맛있는 밥을 해주시던 청주 봉사자들의 노고 또한 참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인류의 희망이라던 티벳트 스님들의 삶을 잠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약 7000여명이 법당에서 구전을 한 달째 받고 있었고, 밤이면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불법을 토론하는 그 모습에서 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뿐만 아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양을 해먹지 않고 대형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수래에 담아 각자의 암자로 가서 암자에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과 식사를 나누고 곧장 공부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일체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토록 열심히 공부와 수행을 해 가시는 그 모습에서 삼보의 귀의하는 마음이 나에게 촉촉이 젖어들었다. 여름이면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살다 보니 냉병을 앓는 스님들과 각종 관절에 이상이 발생한 스님들도 많이 계셨다.

인천에 살고 계신 원겸스님은 출입문 입구에서 안내를 맡았다. 진료 때문에 오시는 스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입속에 해충약을 넣어주시고 물을 드시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님의 연민어린 마음을 볼 수 있었고 우리들로 하여금 많이 웃게 해주셨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참으로 많은 추억들이 나의 가슴에 담겨졌다. 오래 두고 꺼내 보고 싶은 추억들이다. 부디 티벳트 스님들께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공부하시어 인류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하얀 종이 바닥에 조금의 추억을 꺼내 보았다.

의료봉사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약품을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정토마을이 더욱더 힘을 내서 국경 없이 평등심을 가지고 현대의학의 불모지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서원합니다.



무술년 김어가편 가을날 남인도에서 의료봉사 단장,
변호사 김용주 합장



정토마을 국제의료 실천분야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질병의 고통에서 희망을 주는 일, 우리가 합니다.”

Vision

오지마을
진료환경구축

질병예방

질병치료

- **영성** : 민들레(꽃말? 행복)
- **대상** : 지구가족(동남아시아중심) 자연재해, 오지마을, 망명구역, 질병재해, 소외계층
- **역할** : 민들레꽃을 피우고 흩씨가 되어주는 사람
- **사업** : 1.정토마을 민들레 진료소 지어주기
2.연 1회이상 해외의료봉사실천
3.오지마을 어린이 부모형제 만들어주기
4.정토마을 민들레 진료소 운영지원
5.보건위생교육
6.질병예방교육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사명

-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가족들에게 희망의 웃음이다.
-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많이 피면 필수록 질병의 어둠에 밝은 빛이다.
-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흩씨는 차별과 분별 그리고 이기심을 떠난 걸림없는 자애와 연민을 키워낸다.
-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가 되어 일체생명들과 함께 공존과 균형을 이루어가며 깨어 있는 삶을 만들어간다.

나는 어디로 날아가 꽃을 피울 **흩씨**일까요?

- **민들레 접수 및 문의** : 052) 255-8588
010-3087-3804 (담당자. 덕오거사)

마하보디교육원에서는...

생사의 장 공개특강 79명 참석

6월 9일, 마하보디교육원 대강당에서 생사의 장 공개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특강으로 당일 79명이 참석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7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준비 워크숍

6월 9일, 프로그램 스태프, 봉사자, 행정팀이 참석한 가운데 47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워크숍이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원장님께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47th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끝내, 마주하는 나” 30명 수료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47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은 스님과 재가자 30명이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였습니다.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은 불교적 관점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자기를 직면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사론 강의

재단의 법보시로 6월 26일부터 시작되어 총 8회로 진행된 구사론 강의가 7월 19일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시 나왕 윤덴스님께서 1대 달라이라마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강설하여 주셨으며, 통역에는 추겔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불교 논리학 공부 I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8/30, 9/13, 9/30, 10/4) 총 4회로 불교논리학공부 I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계시 나왕 윤덴스님께서 지도하여 주셨으며, 통역에는 지덕스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막연한 대상일지라도 분석을 반복하다보면 근원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접할 수 있다는 논리적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불교 임상기도, 임종 의식 집중수련 교육 실시

10월 2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불교 임상기도, 임종의식 집중수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총 19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환자를 위한 기도훈련과 임종의식을 집중수련하여 영적돌봄의 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에서는...

대학원 1학기 기말세미나

2018년도 1학기 기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도교수님들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교수님들의 피드백으로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열의가 매우 높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1박2일 여름방학특강 - 유식(唯識)명상

여름방학 기간인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김경일 교수님의 유식(唯識)명상 특강이 열렸습니다. 1박2일간 유식사상에 대한 이론과 명상 실습으로 이어지는 짝짝한 일정이었지만 학생들 모두가 앞면 대한 열정으로 특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름 어린이명상캠프

2018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어린이 명상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과 NGO 생명교육네트워크 '공존'이 함께 준비하였으며 지도법사이신 도우스님의 지도 아래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생 3명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NGO 공존 활동가 감마 워크숍

NGO 생명교육 네트워크 '공존'에서 8월 21일, 9월 8일, 9월 15일 3회에 걸쳐 감마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공존'은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생명교육전문가 과정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 활동중인 단체로서 무료시민공개특강, 어린이명상수업 및 캠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활동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2019년도에는 환경과 생명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2019 석사·생명교육전문가과정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 2018년 12월 07일(월) ~ 12월 18일(금) 17:00 까지

석사과정(명상심리학 전공): 3명

- 지원자격 : 석사 -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생명교육전문가과정: 3명

- 전문가 - 제한 없음(의료, 철학, 교육, 사회 복지 전공자 및 NGO활동가 우대)

불교사 특강

- 일시 : 2019. 2. 16. (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강사 : 최종석교수님 (금강대학교 대학원 명예교수)
- 대상 : 본 대학원생, 외부 청강생 5명 (특강료 10만원)
- 접수방법 : 전화

문의 : T. 052)255-8521, 8523 F. 052)264-0209 M. 010-4656-0180

E. grad.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정토마을과 동행의 길

정토마을은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공존을 통해, 함께하는 공생의 삶에 질적 향상을 꿈꾸며

좀 더 아름다운 생과 사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연을 통하여 더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 구 분 | 후원(동참)금 | 계좌번호 | 비 고 |
|-----------|-------------------|--|-------------------|
| 의약품 후원 | | 농협 355-0057-1787-53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 분납가능 |
| 땅한평 공양불사 | 30만원 | 농협 351-0487-2570-73 (일시불) 예금주: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CMS)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 |
| 민들레 후원 | |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 월1회 |
| 정토가족 정기후원 | 매월 1만원 이상 | 농협401131-51-08024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 |
| 법화경 천일기도 | 매월 3만원 | 농협 401131-51-081662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 |
| 108병상 후원 | 108만원 (분납/일시불) |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 36/20/10회 분납가능 |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전화 : 052)255-8588 010-2926-8500 담당자 : 지불안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 양·한방 협진 진료를 통한 통합적 진료와 처방진료과목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방사선실

§ 특별한 치유 서비스

영적돌봄연구실을 통한 임상전문 상담 치유

전문적인 영적돌봄을 위한 연구와 돌봄 교육을 진행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중재를 포함한 적극적인 영적 돌봄으로 전인적 치유를 돕습니다. 또한 임종기도의식을 통한 편안한 여정으로 동행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술통합치유

음악, 미술, 춤, 노래 등 다양한 예술 활동 및 역할극 심리치료를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자기 성장을 만들어가는 자아통합의 행복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인기외래

- 물리치료
- 한방 침·뜸 치료
- 자재공진단 : 집중력 강화, 면역강화 효과
- 산삼경옥고 : 면역력증가, 만성피로회복,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
- 한방소화제 : 식욕감퇴(식욕부진), 소화불량, 과식, 구역, 구토 시 복용

§ 진료안내

외래진료 : 09:00~18:00 (월~금)

입원상담 : 052-255-8400 (주말, 공휴일 휴무)

§ 입원대상자

호스피스완화의료대상자 및 암 환자, 중풍, 치매, 노인성·만성 질환자, 수술 후 회복중인 환자

제9차 기해년법화경독송 21일 장좌기도 봉행안내

법화경 장좌기도는 정토마을 승가공동체 스님들께서 모두 합심하여 21일 동안 매일 24시간 법화경을 독송하는 기도로, “삼재액난 소멸. 선망부모천도. 수자령영가를 위한 본 기도 대법회가 2019년이면 9년째 봉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태민안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평온한 삶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오니 이 글을 만나는 인연으로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1일 기도 회향은 정월 대보름 동해 앞바다에서 방생법회로 봉행하며,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전 세계가 삼재팔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때 우리가 마음을 크게 내어 지구 가족들의 안녕과 나의 가족들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를 위한 법화경 독송 21일 장좌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입재 : 2019.01.30_수요일(양) / 회향 : 2019.02.19_화요일(양)

음력 정월대보름 감포앞바다에서 용왕재를 올리면서 회향합니다

설판 공덕주를 모십니다

설판 공덕주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큰 불사나 법회에 경제적으로 증추적인 보시를 함으로써, 그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선업의 공덕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공덕 무량합니다.

| | | |
|----------|-----------|-------|
| 설판공덕·기도비 | 설판재자 | 210만원 |
| | 부설판재자 | 108만원 |
| | 일반생축 동참재자 | 10만원 |
| | 영가1위 | 1만원 |

● 계좌안내: 농협 351-0487-2583-23(정토마을)

● 기도접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010-2926-8500 담당자 지불안



간월산 간월보궁 및 삼천불 공경전 대작불사가 기공식을 마치고 회향을 위한 준비로 바빠지고 있습니다.

명산서기 가득한 간월산 좋은 자리에 후원자님들의 지극한 정성이 모였으니 이 자리가 바로 제불보살님 호령하는 거룩한 도량이 이룩될 곳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각각의 다양한 원을 실어 천년이 이어질 대가람불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수희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사에 동참한 공덕

1.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창성할 것이요
2. 소망이 장애 없이 속히 성취될 것이요
3. 무병장수할 것이요
4. 부귀하게 되고
5.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6. 부처님의 가호하심으로 삼재팔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7.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것 이요
8. 사후에 극락에서 태어날 것이다 (일체경)

부지런히 복의 씨앗을 뿌려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망 성취하소서

간월사 삼천불 공경전에 부처님 모시기



소원성취 가족원불

원불은 개인의 소원을 담아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원불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에 가족, 친구, 지인들과 동참하여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섭시다.



무지하고 어리석어 고통 받는 너와 내가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하며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모시겠습니다.



범람하는 난치성 질병 더 이상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약사여래불**을 원불로 모시겠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으로 폐허가 되어가는 나의 가슴에 자비심으로 숲을 만들기를 발원하며 **관세음보살**님을 원불로 모시겠습니다.

불사모연 안내

- 주 불 : 아미타불 500만원이상(1인)
- 삼존불 : 2,000만원(가족)
- 원 불 : 지장보살 108만원
 약사여래불 108만원
- 땅 1평 공양불사 : 1평 30만원
- 보궁 불사 일반동참 : 10만원 이상

■ 법당불사 동참은 형편에 맞게 분납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 문 의 : 052-255-8586 (화주:평등각)

마하보디교육원 Since 1993

48th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생·멸 그사이에 핀 꽃

- 교육기간 : 2019년 1월 5일(토) ~ 1월 10일(목) (5박 6일)
- 교육대상 : 사부대중(선착순 40명)
- 교육비 : 80만원 (학인스님 20% 감면)
- 접수마감 : 2018년 12월 21일 (금) 까지



4th **솔마더 (Soul mother)** 수련생 모집

- 기간 : 2019년 매월 첫째주 토 ~ 일 (4월~11월, 총 8회)
(회당 15시간 / 토:오후 1시~오후 10시, 일:오전 6시~낮12시)
- 대상 : 사부대중 (선착순 30명)
- 교육비 : 140만원 (수련복 별도)



-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1매
-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 교육문의 : T. 052)255-8522, 8524 F. 052) 264-0209 M. 010-8848-8522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A.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수많은 민들레 홀씨들을 만들어 차별없는 평등심으로 현대문명의 불모지이며 현대의학이 가 닿을 수 없는 해외 산간오지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진료소 건립, 의료봉사 및 질병 예방교육등의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제의료봉사입니다.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재단법인사무국
Foundation Executive Office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국제의료봉사를 통하여 불교의 자비가 생명으로 피어나기를 발원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에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금 사업입니다. 현대의학의 부재로 인간의 생명이 질병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을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가 하겠습니다

나눔동참

농 협 401131-51-080245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 금 주 (재)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 Kookmin bank seoul korea
계좌 713701-01-001909
(jungtosagwan-jajaehoe)

접수방법

전 화 052-255-8595
010-3087-3804 (담당 : 덕오거사)
팩 스 052-254-2347
홈페이지 www.jungtoh.org
방문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재)정토사관자재회